

#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부록: 친구들 · 1999년 6월호



# 친구들



**표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줌”, 42쪽 참조. (앞) 사진 촬영: 토니 스톤 이미지. (뒤) 사진 촬영: 리처드 엠 롬니.

**친구들의 표지**  
말일성도 개척자들이 유타로 이주한 것을 재연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두 어린이가 닳아 버린 신발을 보여 주고 있다. “뉴스 속의 친구”, 6쪽 참조. 사진 촬영: 웬든 시 앤더슨.

##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영감의 말씀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 8 날 준비시켜 주신 여왕님 조운 포터 포드와 라리네이 포터 곤트
- 11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 알리라” 케네스 존슨 장로
- 16 집에서의 데이트 각리 통
- 22 “다 좋은데 ... 그 한 부분만 제외하면” 에나 베이트먼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자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함
- 28 혼합된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함 로버트 이 웰즈 장로
- 42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와줌 브래드 윌콕스
- 48 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레니 로사 에이 실바

## 청소년란

- 18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26 봉사의 꿈 존 자이로 부스타만테
- 36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왔다 엘리자베스 쿨리부시
- 38 “우리는 네가 오는 걸 원치 않아” 샘 지일즈와 크리스티 지일즈
- 41 난 어울릴 수가 없어! 지넷 웨이트 베넷

## 친구들(별책 부록)

- 2 이야기: 새유일의 경전 실러 킨드레드
- 4 함께 나누는 시간: 계명을 지키라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6 뉴스 속의 친구들
- 8 심심풀이: 개척자들
- 10 탐험: 생명을 구해 준 백합 제랄딘 티 필딩
- 12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우리의 첫번째 가족 금식 로렌조 프렌체사  
올바른 선택 조든 스텐지어
- 14 음식 축복 편 알 로오



8쪽 참조



42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글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퍼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알린 케이 헨슨

**고문:** 제이 이 헨슨, 존 엠 매드슨

**교파 파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롱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미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테일러

**제작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뎀 캄펜

**선임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토마스 에스 그로버그, 데니즈 커비, 제이슨 엠 엠포드, 디나 엘 소렌슨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99호, 제 36권, 제 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한상익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문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문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1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기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une 1999 vol.36 No.6.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교회 회원들의 사랑**

리아호나를 읽기 시작한 뒤부터 저는 자신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주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교회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용기를 느끼고 있고, 그것은 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듭니다. 잡지를 통해서, 저는 저에 대한 다른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7월호의 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제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정운모,  
부산 서지방부  
영도 지부



**친구들을 쉽게 접하게 할**

저희 독일에서는 친구들이 리아호나의 다른 기사들과 같이 제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많은 회원들은 이러한 제본 방식이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청

년과 성인들은 공과나 말씀이나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을 위해 리아호나를 사용하는 데, 어린이들은 가정과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을 사용합니다. 두 부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친구들을 리아호나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어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다시 붙여야 합니다. 친구들을 분리하지 않으면 어른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사들 가운데 섞여서 어린이들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읽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매일 이 훌륭한 잡지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쉽게 친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안과 라엘 그라우브,  
스위스 취리히 스테이크,  
알트슈테텐 와드,

편집자 주: 저희는 이 잡지를 모든 연령층의 독자들이 가능한 한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6월호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를 지역의 실정에 따라 폴로 붙인 별책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낚은 스테이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의 제본을 통해 독자들이 친구들 낚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읽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본 리아호나에 관한 독자들의 관심사와 제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지나 기사나 제언을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 영감의 말씀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거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해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길  
바라십니다.”

## 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타 교회의 교리와 세상의 철학에 그 마음이 혼탁해진 적이 없는 한 소년에게 나타나심으로써 탄생된 교회입니다. 소년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생각또한 깨끗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온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에 관해 읽으셨길 바랍니다만, 그 훌륭한 첫번째 시험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권세에 관한 다른 사항들이 계시로 다가왔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과 모든 합당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는 성신권에 관해 계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 교회와 견줄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케이프 베르테 산티아고 프라이아 모임 말씀, 1998년 2월 22일)

### 말일성도는 그리스도교도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이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항상 그 같은 주장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려지고 널리 전파되어 왔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나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선의가 인정받는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KNBC에서 척 헨리와 가진 인터뷰 말씀, 1997년 3월 7일)

### 성찬식

“매주 성찬을 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성찬식이 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께서 행하신 위대한 속죄의 상징물인 성찬을 취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너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또한 성찬을 하나의 기회와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 대회 말씀, 1998년 3월 15일)

### 남편의 책임

“아내를 두고 계시는 남편 여러분, 훌륭한 남성과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도 절대 학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품 속으로 불러들여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심을 느끼게 하십시오.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단계에 이룬다면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간다면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아내 또한 하나님의 딸이며 여러분으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결혼한 분에게 사랑을 주고 감사하고 진실되십시오.”(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말씀, 1998년 3월 14일)

### 십일조

“어린 시절 우리 형제들은 매년 12월이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감독님 댁으로 갔습니다. 당시 집회소에는 감독실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윽고 감독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따로 불러 십일조를 얼마나 냈는지, 얼마를 내고 싶었는지를 확인하곤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인 우리는 아주 적은 액수를 냈습니다. 저는 금액 자체보다는 규칙을 따르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십일조는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십일조 기록부에 이름이 올랐고, 그 후론 십일조를 드리기 가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에콰도르 키토 노변의 모임 말씀, 1997년 8월 12일)

### 청소년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아른 신권을 갖고 계신 형제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청년 그룹에 속해 있는 사매 여러분, 세미나리와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 속해 있는 분들로서 신앙을 지키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삶의 안내자가 되어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간구드리십시오. 부도덕한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달콤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



분을 과멸시킬 것입니다. 제가 구태여 무엇이 나쁜 일인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무엇이 옳은 지도 다들 알고 계십니다. 부디 의를 선택하십시오!”(멕시코 푸에블라 모임 말씀, 1997년 11월 9일)

**교육**

“청남 청년 여러분이 가능한 한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교육 과정을 통해 연구와 신앙에 따라 여러 나라와 왕국 및 세상의 일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교육은 희생하고 힘써 노력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만일 지식을 넓히고 기술을 익히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회원으로 있는 교회에 영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대한으로 모든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또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은 아들딸에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교육을 받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대한으로 모든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또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은 아들 딸에게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될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하십시오.”

으라고 권유하십시오.” (멕시코 에르모시오 모임 말씀, 1998년 3월 9일)

### 선교사들에게 주는 권고

“여러분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갖고 있는 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삶을 뒤돌아 볼 때 이 기간은 감사와 고마움으로 가장 위대했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하십시오.” (가나 아크라 모임 말씀, 1998년 2월 16일)

### 친절하십시오

“저희와 함께하셨던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 중에 조셉 앤더슨 형제님만큼 장수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 분은 102년을 사셨습니다. 수년 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개인 비서를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랜트 대관장님은 뇌졸중을 일으켜 심각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날 밤 조셉 앤더슨 형제님이 그 분을 찾아 뵈자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내가 혹시 자네에게 불친절한 적은 없었나?” 이에 앤더슨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랜트 대관장님, 제게 한 번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대관장님은 주룩룩 눈물을 흘리시면서 “조셉, 내가 자네에게 불손하게 대한 적이 없었다니 감사할 일이구먼.” 그리고 이튿날 대관장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신의 일을 감독했던 분께서 본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을 하다니, 이처럼 놀라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말씀,

1998년 2월 14일)

### 새로운 개종자를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합니다. 침례 받은 분들을 잘 보살피십시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는 하겠지만, 그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친구가 되어 주며 질문에 대답하고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 친구와 동료들을 떠나야 하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한 후에야 교회 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종자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도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침례 받고 입교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발전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두의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멕시코 레온 모임 말씀, 1998년 3월 11일)

###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큰 기대를 거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의 물로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물에 매장되어 옛 사람을 버린 뒤 새로운 생명을 얻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즉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남자와 훌륭한을 지닌 여자가 되길 기대하십니다. 그분이 온전하시듯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교회와 왕국의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길 바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마태복음 22:37~38) 이는 그저 지나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카나리아 군도 라스팔마스 모임 말씀, 1998년 2월 13일) □

“여러분은(선교사들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내용들은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2. 이곳에 인쇄한 발췌문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복음 교육을 담당하는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고 축복할 만한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별한다.



It was just  
a few days  
before the  
end of the  
war.

# 날 준비시켜 주신 여왕님

조운 포터 포드와 라리네이 포터 곤트

스리락사나 "스리" 선타라헛은 태국 방콕에서 1924년 7월 4일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자의 주치의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안사라삭사지 여왕의 친구였다. 스리의 가족은 티크 궁전으로 여왕을 자주 방문했다. 스리가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여왕은 그녀를 키우겠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그녀가 가족들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다.

여왕은 스리를 진팔처럼 사랑했다. "난 여왕의 침실에서 여왕의 침대 앞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습니다."라고 스리 자매는 말했다. "창문에 스크린이 없었기 때문에 침대는 커다란 실크망으로 둘러 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왕과 함께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을 먹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는 유럽인 수녀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영어만 써야 했습니다. 방과 후에 저는 궁전으로 돌아와, 여왕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그녀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8년 동안의 제 일과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저는 대학교의 학위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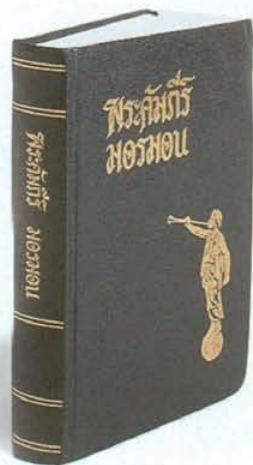
학교에서 스리는 가끔 영어 성경을 보았다. "저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전통은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스리는 말했다.

스리는 열 일곱 살까지 여왕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녀는 추라롱콘 대학을 다녔다. 뛰어난 언어 실력 덕분에 그녀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정부의 고급 관리들의 재정 담당 비서관이 되었다.

래리 화이트 장로와 칼 헨슨 장로가 1968년에 그녀를 만났을 때는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 전 그 선교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스리 자매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왔습니다. 전 물문경을 3개월 동안 책장에 꽂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 책을 읽기로 결심했고 그 책을 들고 '이 책 안에 저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책을 펴서 읽을 수 없을 때까지 읽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책을 제 가슴에 품었습니다. 곧 제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왼쪽: 스리락사나 "스리" 선타라헛  
배경: 태국 건축물의 세부 묘사  
위쪽: 티크 궁전  
아래쪽: 태국어판 물문경





건물의 세부 묘사의 사진 촬영: 마이클 맥케이

여, 아버지시여' 전 그가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한 후 일어나서 쉬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스리와 그녀의 두 자녀는 그녀의 44번째 생일인 1968년 7월 4일에 침례 받았다.

스리가 여왕과 함께 살면서 받은 교육은 그녀로 하여금 몰몬경을 영어로 읽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몰몬경을 태국어로 번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 번역은 1970년에 시작되었고 스리는 번역위원회의 수석번역자의 부름을 받았다. 번역 작업은 1974년에 끝났으며 태국어로 된 몰몬경은 1976년에 발행되었다.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저는 영적인 힘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라고 스리 자매는 말했다. "저는 방언과 언어의 은사를 부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몰몬경 번역본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을 때인 1975년에 그녀는 교리와 성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번역위원회의 다른 번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번역을 중단하게 되었고 스리만이 경전의 번역 사업을 계속하

**맨 위:** 1990년 6월에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최초로 여행한 200명의 태국 회원들 중의 일부  
**위쪽:** 태국 건물의 세부

게 되었다.

그녀는 낮에 직장에 다녔지만 집에 돌아오면 번역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매일 갖는 번역 위원회 모임을 위해 최대한 많은 구절들을 번역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자주 초벌 번역을 위해 일했다. 한 번은 그녀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청소일을 하러 갔다. 몇시간 동안의 힘든 작업 끝에 다른 회원들은 그녀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스리는 이미 쉬고 있는 거라고 했다. 집에 가면 번역을 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의 번역은 1979년에 완성되었다.

여왕이 죽기 전인 1974년에 스리는 병원으로 그녀를 찾아가다. 시중을 드는 여자들은 전부 그들의 서열에 따라 여왕의 침대 주위에 앉아 있었다. "여왕은 몹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들어가자 절 보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스리자매는 말했다. "그녀는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 고 하셨습니다. 전 앞으로도 항상 여왕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왕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몰몬경을 읽을 수 있었으며 복음을 받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왕 덕분에 저는 올바른 태국어로 읽고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태국어로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이 번역된 것입니다." □

#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 알리라”

케네스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삽화: 브래드 티어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복음 원리의 영원한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언젠가 저의 조연을 구하러 온 고객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분의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사업에는 부친과 함께 운영한다는 중고 가구와 가정용품 판매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경매 시장과 염가 판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가정에서 내다 팔려고 하는 물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물건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물품 확보를 위해 투자한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번은 어느 집에서 노인이 사망했는데, 이때 저의 고객인 그 아들이 사망한 노인의 집에 있던 살림들을 치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숨진 노인의 방에서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언젠가 자신이 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림이나 골동품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은 그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림을 떼어 다른 물품들과 함께 차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후 아들이 신고 온 집을 부리는 도중에 아버지가

그 그림을 주워 들고는 자세히 보면서 “그림 보는 눈만 있어도 좋겠 다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그림은 그다지 가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부친은 화랑을 운영하는 한 친구에게 그 그림의 감정을 의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그 아버지의 친구가 그 그림은 적어도 2,0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들뜬 이들 부자는 그림을 가지러 화랑으로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그림을 담요로 잘 싸서 두 팔에 꼭 안고 왔습니다. 그 그림은 경매장에서 25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저의 고객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자기는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그림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따금 그 젊은이의 경험담과 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림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더구나 그 그림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취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꺼이 삶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순종으로써 씨앗을 자라게 할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세주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구세주에 대한 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경전을 상고하곤 합니다. 저는 떡 다섯 개와 두 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았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과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요한복음 6:24~25)

요셉 스미스역 요한복음 6장 26절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분의 말씀을 좇으려 하였거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젊은이와 그림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구세주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구세주께서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피상적 지식밖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는 후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뇨”(마태복음

13:54~56)

예수님과 교제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교사로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구세주께서 유태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해답이 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알리라”(요한복음 7:17)

저는 비록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지식을 축복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준수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을 탐구해 보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 새로운 교리 하나하나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은 소극적인 신앙이나 단순한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천, 즉 신앙을 행사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복



순종을 정착시킨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음 원리를 배우고 실천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그 복음 원리가 참되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가지 예는 금식의 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얻게 된 새  
로운 신앙에 대하여 부모님께 상세히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적  
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4시간 동안 금식하겠다고 말씀드  
리자 어머니는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실 정  
도여서 금식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시간이나 금식  
을 할 경우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어머니는 제가 부  
모님과 함께 사는 한 그런 금식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소개해 준 회원 선교사인 파멜라에게 어머니  
께서 심하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금식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  
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은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  
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문제라  
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형제님이 주말에  
저희 집에 와 있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금식할 수 있을 거  
예요.”

제가 금식의 법을 맨 처음 지킨 것이 이 때였습니다. 매월 금식  
일마다 금식의 법을 지키에 따라 저는 점차 금식의 원리에 대한 간  
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종종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실천하면 그 일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  
다. 그것은 그 일의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브라이언트 에스 킵클리, *히  
버 제이 그랜트: 위대한 지도자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사건*(1951  
년), 49쪽)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새로운 복음 원리는 모두 그 진리  
가 성스러운 근원에서 나왔다는 확실한 간증을 갖게 합니다. 브리  
감 영 대관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원리는 그 진실성이 인간  
의 마음속에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72년), 72쪽)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복음 안  
에서 성장하면서 쌓인 저의 경험은 행하면 알게 된다는 위의 말씀  
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1959년 7월 어느 일요일 오후, 화창한 날씨에 저는 파멜라와 함  
께 산책하며 이야기하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침례 받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파  
멜라가 “선교사님들이 형제님께 십일조에 대해 가르치시던 일이  
생각나는데요.”라고 했습니다. “십일조가 뭐죠?” 하고 제가 물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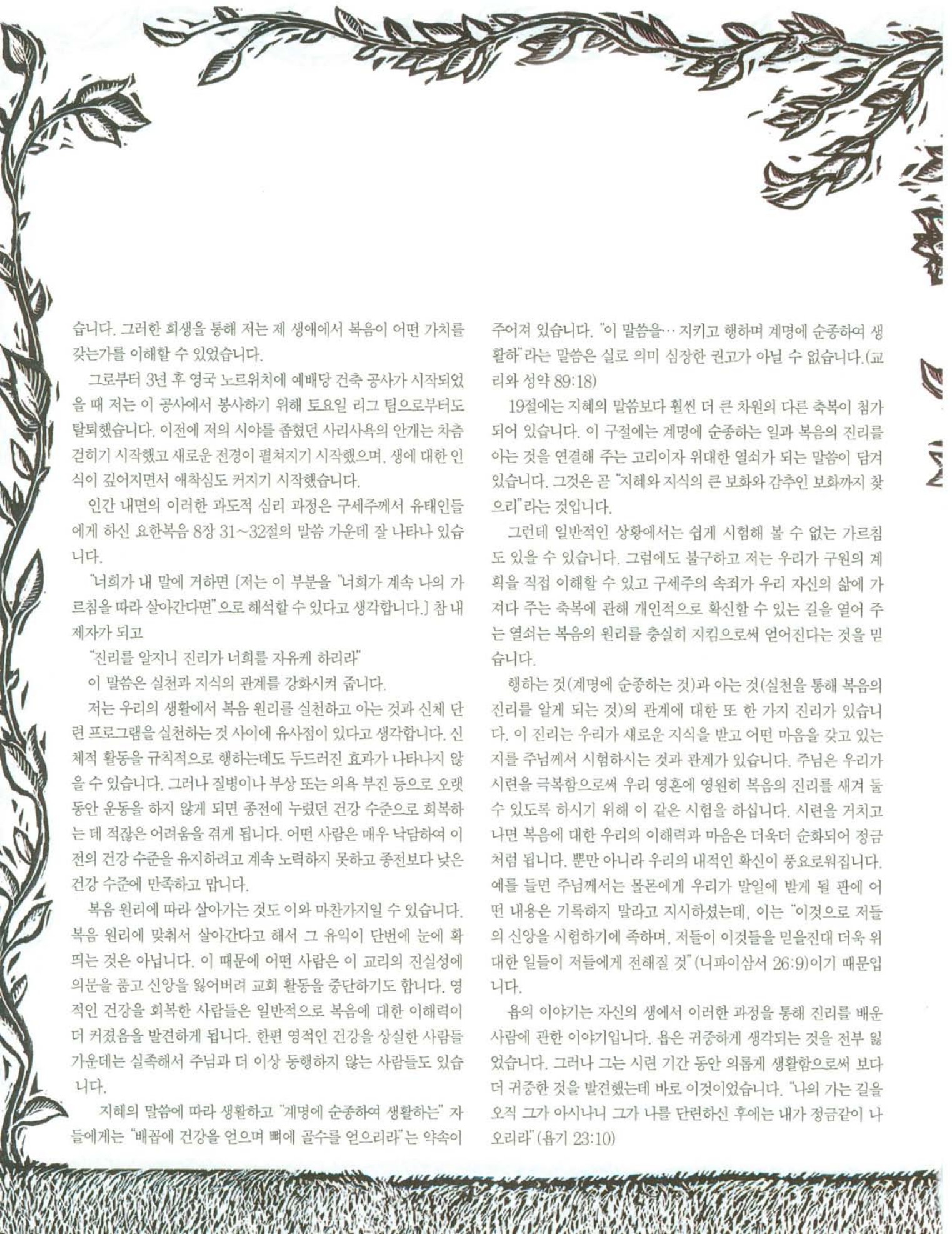
파멜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회원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  
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생애에 충격을 받아 실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이 서너 차  
레 있었지만, 그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0퍼센트라고요!”  
저는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는 십일조를 바칠 만  
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자 파멜라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십일  
조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아내와 네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요. 게다가 우리 아빠의 수입은 형제님의 수입보다 적어요.” 파멜라  
는 계속해서 제가 지부에서 알게 된 또 다른 가족의 예를 들었습니  
다. 그 가족은 저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가 여섯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데 유  
용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가족이 십일조를 낼 수 있다면  
나 역시 십일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1년 후 십일조의 법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실제로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동안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커다란 신앙  
이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일은 나에게서는 더  
이상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이 있었을때  
저는 저의 신앙에 따라 십일조를 바쳤고, 그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말라기 3:10 참조)

회복된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안식일을 하루 종일  
축구 경기를 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주님의 날을 존  
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가르침과 이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  
해하게 된 것은 교회에 들어온 후 이 원리를 실천에 옮긴 후부터였  
습니다. 제가 일요일에만 정기적으로 경기를 하는 일요일 리그 팀  
에서 탈퇴한 일은 제가 개심하기 위해 치른 큰 희생 가운데 하나였



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해 저는 제 생애에서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영국 노르위치에 예배당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이 공사에서 봉사하기 위해 토요일 리그 팀으로부터도 탈퇴했습니다. 이전에 저의 시야를 좁혔던 사리사육의 안개는 차츰 걷히기 시작했고 새로운 전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으며, 생애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애착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이러한 과도적 심리 과정은 구세주께서 유태인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8장 31~32절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저는 이 부분을 “너희가 계속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실천과 지식의 관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저는 우리의 생활에서 복음 원리를 실천하고 아는 것과 신체 단련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활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는데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의욕 부진 등으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종전에 누렸던 건강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낙담하여 이전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못하고 종전보다 낮은 건강 수준에 만족하고 맙니다.

복음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일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유익이 단번에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교리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신앙을 잃어버려 교회 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더 커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 가운데는 실족해서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라는 말씀은 실로 의미 심장한 권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고리와 성약 89:18)

19절에는 지혜의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다른 축복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계명에 순종하는 일과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을 연결해 주는 고리이자 위대한 열쇠가 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시험해 볼 수 없는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해할 수 있고 구세주의 속죄가 우리 자신의 삶에 가져다 주는 축복에 관해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열쇠는 복음의 원리를 충실히 지키므로써 얻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행하는 것(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아는 것(실천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의 관계에 대한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영원히 복음의 진리를 새겨 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시련을 거치고 나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과 마음은 더욱더 순화되어 정금처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서는 물몬에게 우리가 말일에 받게 될 판에 어떤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이것으로 저들의 신앙을 시험하기에 족하며, 저들이 이것들을 믿을진대 더욱 위대한 일들이 저들에게 전해질 것”(니파이삼서 26:9)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자신의 생애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귀중하게 생각되는 것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 기간 동안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보다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이것이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은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을 만  
들기 위하여 신성한 교리와 영원한 원리를 가지고 짠 천과 같  
아서 규정된 양식을 따라 짜는 사람, 즉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  
람들만이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  
로는 인간의 영혼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가르침이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확신이 시험 받은 후  
에는 우리 자신처럼 개인적인 지식도 "정금 같이 나올 것(입  
니다.)" □

복음 생활이라는 규정된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복음의 진리가 가져다 주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영혼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없다.

# 집에서 의

**말**레이시아에서는 결혼 후 부부의 데이트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러한 조연에 대해서 책과 잡지들, 그리고 칼라룸푸르에 있는 우리 지부의 미국인 회원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데이트를 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에 우리는 이 '이국' 적인 생각을 갖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데이트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아기를 봐 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집에서의 데이트는 밖에서 하는 데이트 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극장에서처럼 비디오를 보면서 스낵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컴퓨터 게임이나 체스 같은 것을 즐기며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난 저녁에는 항상 웃음으로 끝이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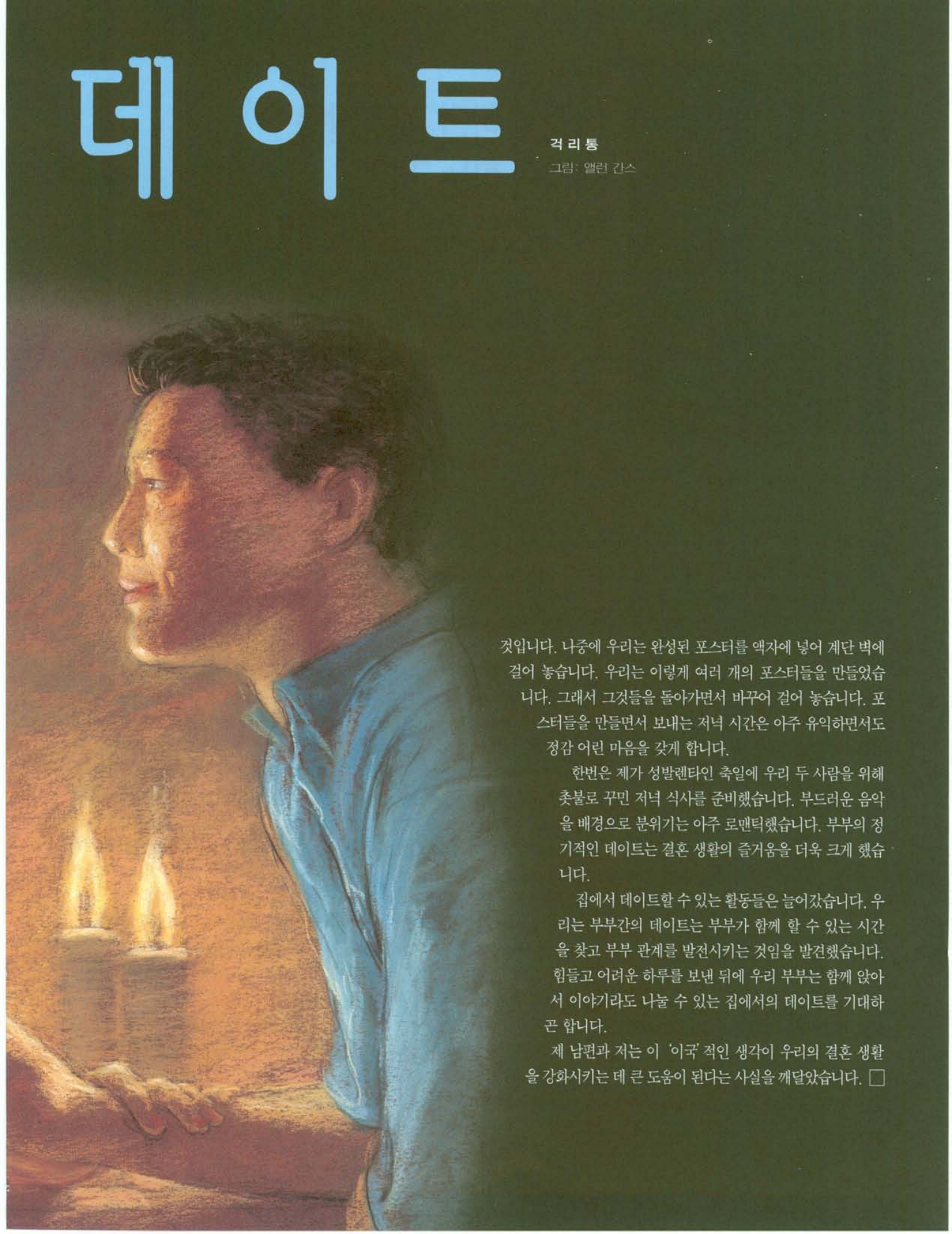
한 가지 정기적인 활동은 가족 사진들을 커다란 포스터에 붙이는



# 데이트

각리 통

그림: 앨런 칸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완성된 포스터를 액자에 넣어 계단 벽에 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포스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바꾸어 걸어 놓습니다. 포스터들을 만들면서 보내는 저녁 시간은 아주 유익하면서도 정감 어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한번은 제가 성발렌타인 축일에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촛불로 꾸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분위기는 아주 로맨틱했습니다. 부부의 정기적인 데이트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집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활동들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데이트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찾고 부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낸 뒤에 우리 부부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집에서의 데이트를 기대하곤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이 '이국'적인 생각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그림: 마이클 제이 넬슨,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명상을 함

질의 응답

##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받은 모든 축복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것들을 나열할 경우 매일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의 대답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방법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인도와 축복을 간구하고 응답을 구합니다.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정해진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에 필수적인 첫번째 의식인 침례 기도가 있고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의 성찬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혼자서 기도하건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하건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 적절하고 주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대로 각자의 말과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똑같은 말과 표현들을 쓰는 습관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말과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도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진실성은 마음의 느낌과 영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표현이 풍부한 말들을 사용하셨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아무런 의미없이 “중언부언”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5~8; 니파이삼서 13:5~8참조)

경전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해 줍니다. 몰몬경에서 앰올레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에 있을 때는 너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가 집에 거할 때 아침 밤낮으로 너희의 권속을 위해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끝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앨마서 34:20~21, 26~27)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니파이이서 32:9) 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는 주님께 끊임

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그분께 대해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감사드려야 할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습관이 아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면 매일 똑같은 축복들에 대해 매일 감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기억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면 기도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에 빠졌다면 다음과 같은 독자들의 조언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목적과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
- 주님께 왜 특정 축복들에 감사하는지 표현한다.
-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간구한다.

•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매일 매일 많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필요 사항들과 받은 축복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독자의 대답

가끔 저의 기도 내용은 똑같은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생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에 대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호르헤 안드레 알자테  
콜롬비아 네이바 스테이크  
라스 팔마스 와드

우리의 기도들은 가끔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들이 진지하고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세리 에스 캄포스  
필리핀 마신 지방부  
마신 지부

우리들이 받은 축복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편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엔 알 가르시아  
필리핀 컵비트 스테이크  
이무스 와드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할 때 더욱 영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전과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올 것입니다.

마리엘라 파레데스 마르케스  
파테말라 파테말라시티 빌라 헤르모사 스테이크  
시우다드 레알 와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겪는 경험들은 매일 다르며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날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말하거나 감사할 것들이 매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츠코 세키구치 자매  
뉴질랜드 오클랜드 선교부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할 때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말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기도의 단계"에 너무 구속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을 열고 갖고 있는 느낌들을 설명하며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합니



호르헤 안드레 알자테



세리 에스 캄포스



마리엔 알 가르시아



마리엘라 파레데스 마르케스



나츠코 세키구치 자매



로드리고 세사르  
고보 장로



데이지 라쿠엘 살라자르  
사라비아



타지일리마 사우이아



로산나 마라  
코레이아 자매



엘리사베타 마란전



엘시 디 비시그



조엘 드 로사리오  
델라 크루즈



마르셀로 레이바 장로



안소니 엘 실베리

다. 이러한 방법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세사르 고보 장로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 사우스 선교부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종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일반적인 축복,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받은 개인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받는 축복.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매일 같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한 감사만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 거처할 곳, 병 고침, 개심하고 교회에 들어옴, 화해 등에 관한 축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 등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린다 안드리아미사말라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리보 지방부  
안타나리보 제4와드

저는 성장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기도를 경청하면서 보다 진실되고 매번 다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무리 같은 말을 되풀이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진지한 기도라고 봅니다.

타지일리마 사우이아

사모아 파코파코 바푸사가 스테이크  
마푸사가 제1와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릴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진지한 의도로 행해졌을 때, 주님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베타 마란전

이탈리아 베니스 스테이크  
트레비소 지부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여러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싫증을 느끼시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싫증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 기도가 매번 비슷하더라도 하나님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란 걸 아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엘 드 로사리오 델라 크루즈

필리핀 말로로스 스테이크  
부스투스 지부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6:5~13참조) 기도할 때 우리는 일용할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질문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태 6:6,8)

안소니 엘 실베리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테이크  
로테르담 제2와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항상 귀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신앙심으로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기도의 내용이 같더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테이지 라쿠엘 살라자르 사라비아  
니카라과 치난테가 지방부  
치난테가 지부

물문경에서는 이노스의 경험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훌륭한 기도의 본모기를 보여 줍니다. 이노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이노스서 1:4)

이노스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구체

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을 영의 인도에 맡긴다면 우리는 매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예언자 이노스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산나 마라 코레이아 자매,  
브라질 벨렘 선교부

오늘은 내일과 다르며,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감사해야 할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주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매일 경험하는 축복들과 시련들에 대해 감사를 하며, 저의 결집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날에는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엘시 디 비시그  
필리핀 라스피나스 스테이크  
라스피나스 제2와드

저는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일상적인 일뿐 아니라 영원한 성격을 지닌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들과 경험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드리고, 저녁에는 결과 보고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셀로 레이바 장로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1999년 8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아니면 CUR-Liahona-IMag@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하시든가 깨끗하게 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명칭을 꼭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담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일학교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 같습니다. 공과에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 좋은데...”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비교육적인 방송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 애나 베이트먼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모델들이 포즈를 취함

나의 자녀 중 한 아이가 아주 인기 있는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듣자마자 한 장면이 나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나의 열두 살짜리 아이가 “오악, 구역질 나는 장면이야.”라고 말했다.

“그래 구역질 나는 장면이다.” 하고 나도 아이의 말에 동의했다. 나는 방송국에 전화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할까 생각했다. 내 생각을 전하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난 몹시 궁금해졌다.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어린이에게는 물론이고 어른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장면은 특히 그랬다.

나는 지역 방송국에 전화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의 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몇 번의 연결 끝에 겨우 그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과 연결되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그리고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저처럼 말해 보았자 소용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는 말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들과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자고 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느끼리라고 생각했지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화하라고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신앙개조 제13조가 생각이 났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더 경계하고 자신의 느낌을 알림으로써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맨 먼저 나는 나의 태도를 바꿔야 했다. 난 “다 좋은데... 그 부분만 제외하면”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영화나 다른 연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자주 들었다. 그 말은 작품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나쁜 부분은 눈감아 주어도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더욱더 많은 ‘역겨운’ 부분들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프로그램들에 삽



그 한 부분만 제외하면”





신앙개조 제13조는 우리가 선택하는 연예 프로그램의 지침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입이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아무도 다른 종류의 제품들이 오염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살모넬라균만 없었다면 '홀름했을' 닭고기를 우리는 먹을 것인가? 나는 영화나 텔레비전 쇼의 내용들을 방영 후가 아닌 사전에 검토하기로 결심했다. 사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느낌이 든다면 나는 영화관을 나오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컸다. 나는 나쁜 이미지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더욱 잘 느낀다.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면 난 더 이상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알린다. 나의 전화나 편지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결과가 바로 나타날 때도 있었다.

한 식품상점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산대 줄 앞에 진열한 불쾌한 표지의 잡지들에 대해 나는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그 가게에서의 쇼핑은 즐거웠지만 외설적인 표지의 잡지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한 것이 불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번에 그 가게에 갔을 때, 그 잡지들이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옮겨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나의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쾌한 자료들에 대한 발언을 하도록 격려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친구는 그녀의 딸이 자신이 속한 댄스 그룹의 의상을 입을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딸은 자신의 그룹이 공연을 할 때 고개를 돌리는 관객까지 보았다고 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딸이 댄스 지도자에게 말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우리는 지도자가 차기 공연부터는 공연을 손상시키기보다 향상시키는 의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음을 알고 기뻐했다.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날 밤 우리 가족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모두 그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서 어색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에게 우리 가족이 그 프로그램을 매우 즐겁게 보았다는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 우리 사회에 선함을 더해 주는 사람들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나는 성신의 영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가족이 선택하는 연예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고 그것이 복음 정신에 부합되게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

#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함

**우**리는 육신을 받고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자제심이 영생을 얻는 데 필수적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영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높이 들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까지... 무지런히 구하십시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 [1997년], 204쪽)

## 자제력을 익히는 방법

자제력을 익히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강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에베소서 4:13)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을 익히는 중요한 요소는 유혹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그것을 물리치고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테살로니가 전서 5:22 참조) 이는 특히 중독성 물질과 습관성 행동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러한 중독과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까지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기도와 금식도 자제력을 구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과 금식은 자제하는 가운데 실행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힘을 끌어내려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사항은 대부분 우리가 자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지갑에서 꺼내 지도자에게 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사리 사욕으로부터 떠나 자신보다 늘 남을 생각하는 것은 극기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비열하고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완전히 가까운 사람의 행위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1982년], 204쪽)

## 서로 도움

누군가가 자제력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힘을 잡기는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궤방 놓을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1915~1994)는 가정 문제로 좌절감에 빠져 있던 어느 상호부조회 회장단 일원이 회장단 모임에서 화를 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당황하여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회장단에서 함께 봉사하는 자매님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그 자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남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형편없게 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무렵에 현관의 벨이 울렸으며, 그 현관에는 회장단의 다른 자매들이 음식을 갖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자매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음식을 조금 가져왔어요. 우리 모두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해요.'"("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20쪽)

아기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자제력도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비틀거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난 비행기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꿈, 즉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주님의 집에 관한 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난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리더였으며,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었다.

# 봉사의 꿈

존 자이로 부스타만테

내가 열세 살인가 열네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비행기로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으며, 난 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었다.

난 이 꿈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좀 이상하면서도 좋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나 나나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비록 그 꿈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꿈이 내 가슴속에 남긴 인상은 여러 해 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난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셨고 그 점에 난 감사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나도 실수를 했고, 그러한 실수들이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점차로 약화시켜 갔다. 집안에서의 긴장감과 보다 나은 삶을 찾으려는 욕구 때문에 나는 보고타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 푸사가수가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의 문제는 계속 되었다.

어느 날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산책을 나갔다.

결국 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에 나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젊은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그 말은 내게 호기심과 희망을 주었다.

난 그녀에게 교회 모임에 참석해도 되느

냐고 물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난 친절한 분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날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었고 선교사들은 내게 첫 번째 토론과 함께 물문경을 주었다.

휴가가 끝난 후, 난 보고타로 돌아갔고 거기서 교통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 잘 걸을 수 없게 되어 틈이 나자 난 선교사들이 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삶의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니파이와 모사이야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선교사들과 토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사고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힘들었지만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커서 나는 선교사들을 찾아 푸사가수가로 돌아왔다.

내가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나의 집 근처에 있는 선교사들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난 집으로 돌아왔다.

내 다리의 깁스를 풀던 날, 비록 아직은 잘 걷지를 못했지만 나는 가장 가까운 말일성도 교회 건물을 찾았다. 난 마치 날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선교사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카스트로 장로와 마마니 장로와 듀란 장로는 나의 많은 질문들에 대담해 주었고 나를 주님의 왕국에 초대해 주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한 도움에 응답을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이들처럼 나는 무릎을 꿇고 진리를 간구했다. 복음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내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달 후인 1994년 6월 4일에 난 침례를 받았다.

개종을 한 지 1년 만에 나는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현대의 예언자들과 물문경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출발하기 1주일 전에 나는 어머니에게 침례를 주는 축복을 받았고, 어머니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찾게 된 것이었다.

1995년 7월 14일에 난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다. 훈련이 끝날 무렵에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은 나를 페루의 리마 성전으로 선교사들을 인솔하는 리더로 지명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21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난 비행기의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그 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꿈, 즉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주님의 집에 관한 꿈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런데 내가 우리의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준비해 오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진리들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콜롬비아의 바랑키야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

# 혼합된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함

로버트 이 웰즈 장로 칠십인 명예 회원 겸 칠레 산티아고 성전장

**혼** 합된 가족을 구성하는 부모들은 자녀  
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들의  
같은 생활까지도 발전시키고 강화  
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께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 어머니는 자녀 없이 홀로 된 분과 재혼해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아내의 아이들과 우리들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셨을 만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섯 식구는 모두 서로를 전통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계부"나 "이복 동생"과 같은 호칭은 피했습니다. 그 한 예로 저는 계제 아버지가 두 분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니다. 한 분은 제게 풍요롭고 고귀한 유산을 안겨주신 생부이셨고 다른 한 분은 저를 키우시면서 제2의 풍요롭고 고귀한 유산을 주신 분입니다. 막내 동생의 성이 저와 다르긴 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하나가 되어 차별 받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집은 서로 봉사하고 희생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다들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혼합 가족"이었습니다.

혼합된 가족은 부모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해당 가족의 자녀들의 친부모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재혼이나 이혼 또는 입양 등, 혼합된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핵가족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팎의 혼합된 가족들은 성공적이고 사랑에 넘치며 하나로 단합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혼합된 가족은 새로운 관계와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특이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혼한 뒤 재혼을 한 경우 자녀들은 두 어른과 두 가족 사이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혼합된 가족을 형성하는 부모들은 해당 가족 내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당시시간의 결혼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 재혼을 결정함

혼합된 가족을 형성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고려해야 합니다. 혼합된 가족은 결혼하기로 한 두 사람은 물론이고 이들의 자녀, 자녀들의 배우자, 친척, 조부모나 고모, 삼촌 같은 사람들, 두 사람의 전 배우자들을 서로 가깝게 맺어줍니다.

"아마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일 것이며, 이는 여러 면에서 엄청난



사진 촬영: 스티브 맨너스; 모델: 포스틀리프; 편집: 김유미; 디자인: 찰스 임베이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이 즉각적인 행복 및 영원한 기쁨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관련된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세대에 걸쳐 특별히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결혼과 이혼[1976년], 10쪽)라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세기2: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재혼을 하거나 성공적인 혼합 가족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헛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선불리 이뤄져서도 안 됩니다.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먼젓번 결혼에서 분노를 느끼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거를 흘려 보내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앞날에 대해 불합리한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에게는 슬픔을 헤쳐 나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준비도 채 되기 전에 재혼해서 혼합 가족에 대한 문제와 의무를 떠맡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생활과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 호, 24쪽)

이러한 것은 성인이 된 제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귀기 시작한 여자 친구와 결혼해 예쁜 세 자녀를 낳아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일 아내는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거의 2년이란 세월을 비탄과 슬픔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부모님과 장인 장모께서 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금식과 진지한 기도로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의 드렸을 때 저는 재혼하는 것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배우자를 선택함

재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 상황을 잘 아는 친구와 친지들에게 편지를 써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동시에 교회 지방부장이면서 금용인인 남미 사람의 아내가 될 뜻이 있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섯 장의 소개서를 받은 후 저는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해야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결국 저는 사랑하는 아내 헬렌에게 구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헬렌은 두 살 짜리 딸을, 그리고 저는 세 살, 여섯 살 된 두 아들과 아홉 살 난 딸을 데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 우리 부부는 딸 셋을 더 낳아 일곱 자녀를 둔 혼합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응답 덕분에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은 확고한 토대 없이 짧은 시간의 구애 끝에 결혼하는 것은 그다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해야 할 일까지도 대신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저는 헬렌 가족의 배경과 전통, 그리고 간증과 주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헬렌 역시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애를 하면서 결혼과 혼합된 가족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인품.**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는가? 그가 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 **능력(행위 능력).** 남편이 될 사람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나? 아내가 될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과 의사가 있는가? 결혼할 두 사람 모두 혼합된 가족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각오가 있는가?

- **수용력.**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있어서 -신앙과 기도와 봉사과 희생을 통해 형성된 영성- 혼합된 가족을 결속시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주의 깊게 계획하고 생각하며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써 모든 결정 중에도 특히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진실된 결혼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전체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금식과 기도와 진지한 사고로 힘을 얻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커질 것입니다.”(결혼과 이혼,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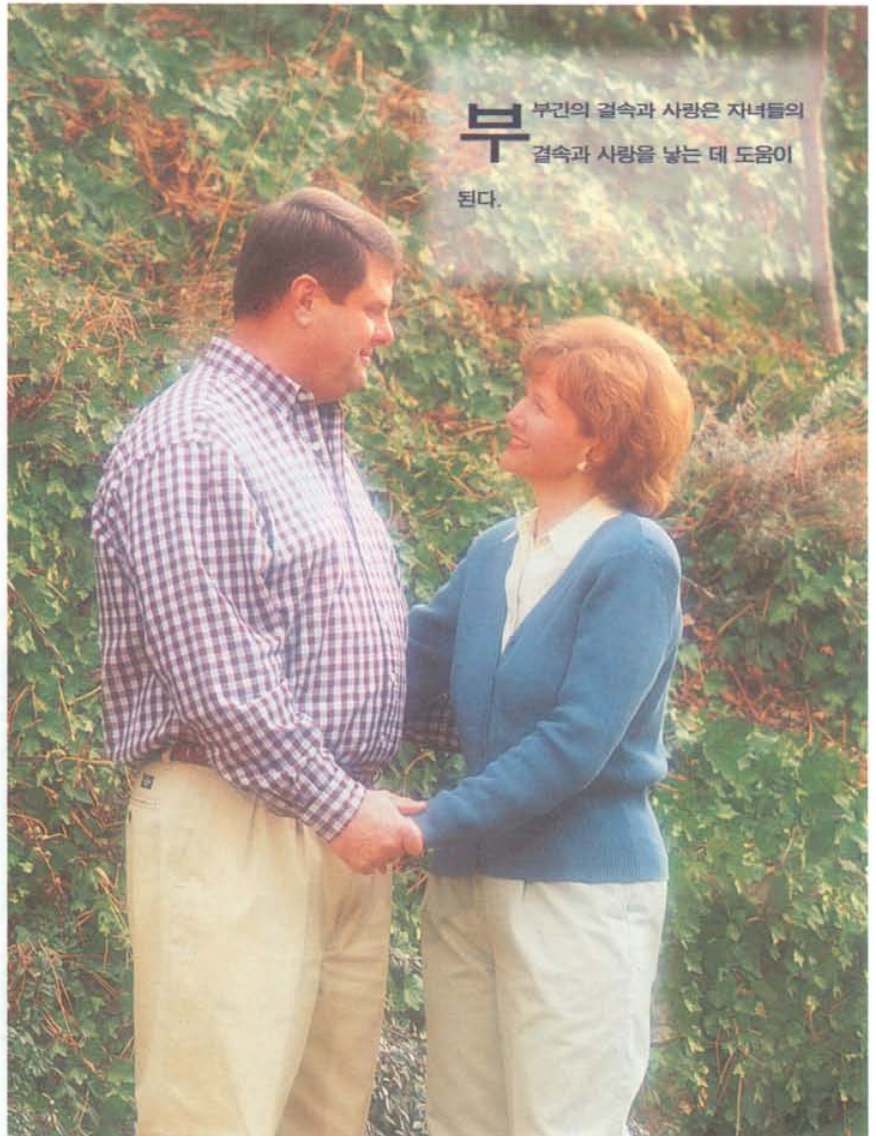
#### 시련에 대처함

결혼식을 올린 후 혼합된 가족 모두가 소망하는 “지속적인 행복”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참을성 있게 지낼 때 비로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마다 어려움은 다 있지만, 혼합된 가족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들은 자신들이 꾸민 혼합된 가족에게 다가올 시련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혼합된 가족들이 허심 탄회하게 다뤄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와 관련 있는 제언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 **단합.** 주님은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혼합된 가족은 단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의 화합은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부부간의 굳은 결속과 사랑은 자녀들간의 결속과 사랑을 낳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강건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합하기 위해 목표와 시간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 참석,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평의회, 작업 계획, 휴가, 여가 활동 등은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혼합된 가족의 경우 이전에 세웠던 가족 목표와 가풍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집안 전통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



**부** 부부간의 결속과 사랑은 자녀들의  
결속과 사랑을 낳는 데 도움이  
된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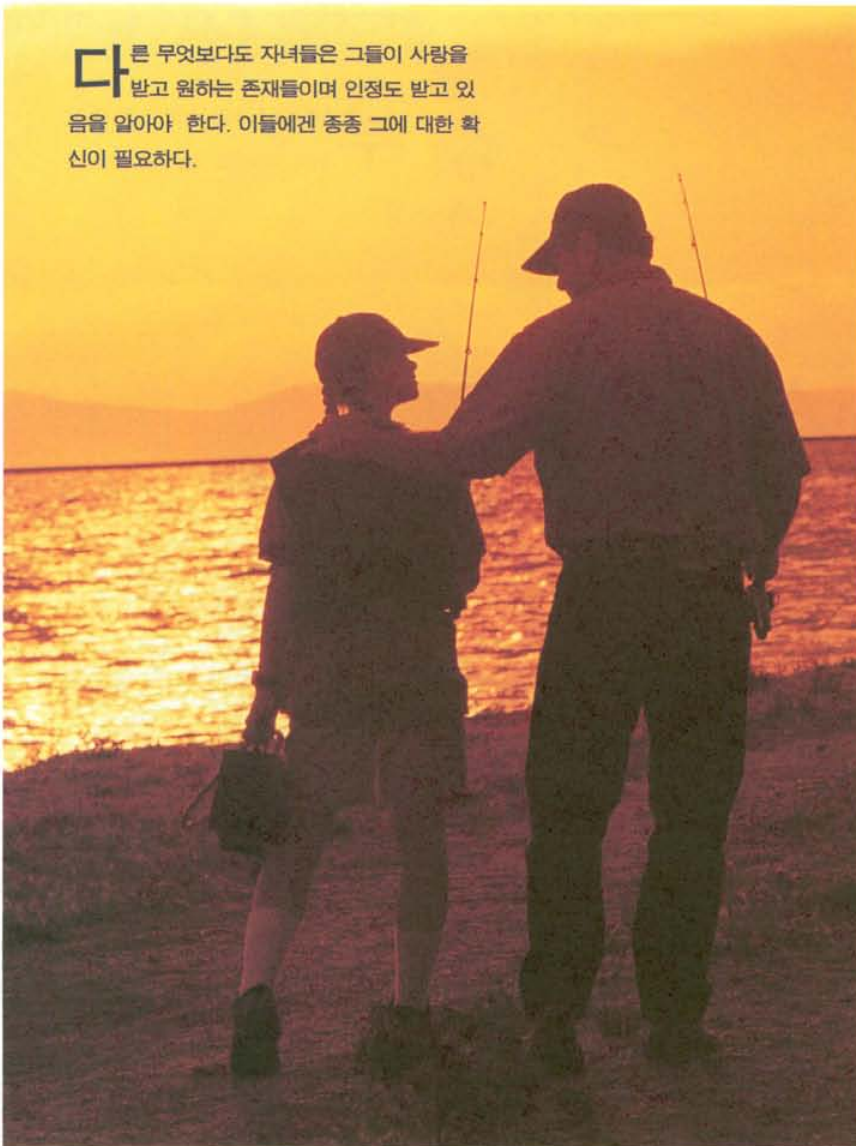
친부모가 아닌 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의붓아버리와 의붓자식들 간에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고 조화가 잘되는 혼합 가족이 형성되려면 경우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조차도 혼합된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일을 하거나 기대를 겁니다. 일부 의붓부모들은 자녀의 삶에 있어 부차적인 역할만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붓부모는, 자녀와 이제는 그 정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먼저 번 부모간의 관계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는 그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 부모와 빨리 가까워지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새 부모의 사랑을 놓고 힘겨움을 헤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에 남아 있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을 보여 주고 인내함으로써 자녀의 가슴에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작성한 가족 선언문의 말씀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8년 10월호)

• **의사 소통.** 혼합된 가족이 서로의 임무를 규정하고 한계를 설정하며 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개방적이고 진솔한 대화, 즉 외교적인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죽음이나 이혼이 남긴 상처를 -불안감, 자존심 및 자신감의 상실, 남을 신뢰하지 않는 것-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 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새롭고도 건전한 가족 상호 관계를 이룩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과거를 향해 열린 창을 한꺼번에 다 닫진 않습니다. 홀로 된 남편은 새아내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몰라도 자녀들은 아직 새 어



**다** 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을 받고 원하는 존재들이며 인정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들에겐 종종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머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고 격려해 줄 부모가 필요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은 “가족간의 대화는 느낌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어야 효과적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참여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할 때 가정에서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가족 토론을 할 때는 서로의 차이점을 경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차분히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지적이나 사건은 건전하게 지속되는 관계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가족 대화,” *엔사인*, 1976년 5월호, 52쪽)

혼합된 가족의 구성원들은 식구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과 느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받은 고통과 아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고통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게 마음을 터놓는 것은 생각의 공감대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 주며,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새롭고 건전한 관계를 맺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자녀 대 자녀, 부모 대 자녀, 부모 대 부모, 배우자 대 새로운 친지들 등의 관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 **인봉.** 전 미국 상원 의원 제이크 간은 1976년 첫 아내인 헤이즐과 사별한 후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면서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케슬린 브리워튼과 데이트하기 시작했고, 결국 케슬린은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두 번째 부인에게 인봉된다면 숨진 첫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스폰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 갔습니다.

간 형제님은 후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분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충실함을 통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며, 저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케슬린은 대관장님께 헤이즐을 화

나게 할까 두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태도가 바뀌시는 듯했습니다. 앞에선 다소 주저하며 대답하셨는데, 이젠 강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케슬린을 똑바로 쳐다보셨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헤이즐은 자매님을 존경할 뿐 아니라 팔로 자매님을 감싸안고 자신의 자녀들을 길러 주신 데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내가 믿는 이유(1992년), 13쪽)

가족 구성원들은 혼합된 가족의 인봉 문제에 대해 다음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써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혼합 가족들 중에 내세에서 누구에게 속하게 되며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 너무 걱정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는 가족을 보아 왔습니다. 제 모친과 그분의 두 번째 남편은 아들을 하나 두셨는데, 그가 바로 제 남동생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인봉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예지와 사랑을 신뢰하며 의롭게 살려 애쓸 뿐입니다.

• **친밀함.**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함여여... 한 몸이”(마태복음 19:5) 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친밀함이 자랄 잡게 하려면 이해와 보살핌과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친절하고 [서로에게] 민감하면서 마음을 터놓아야 합니다. 만일 한 쪽 배우자가 새로운 혼합 가족이 너무 대가족이어서 친밀감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다른 한 배우자가 어느 나이가 되면 육체적 가까움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할지라도 감정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본질은 정열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평안과 복리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방법만 생각한다면 신뢰나 사랑뿐 아니라 행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릴 때에만 사랑이 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번영과 발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벗, 1993년 3월호, 7쪽)

• **가정 경제.** 혼합된 가족의 예산은 이전 결혼에서 그대로 넘어온 자산과 부채로 인해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가 예산 문제의 일부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의 변화나 입히고 먹여야 할 가족 수의 증가로 예전의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족의 재무 상황과 금전상의 제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온 가족의 도움을 받아 빈틈 없는 예산을 세우고 재정적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면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 여건에 대해 자주 검토하고 돈 문제에 관한 특별 대우는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감독님이나 유자격 상담자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형제와 이웃과 사업 거래자들에게 채무를 지불하는 최선의 방법은 나로서는 하나님에게 채무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빚이 있을 경우에는, 주님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보다는 주님에게 정직하게 갚은 후에 이웃에게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복음 교리, 232쪽)

• **혼계.** 부모는 사랑과 애정과 신뢰와 자상함으로 엮여진 유대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후라야 자녀를 효율적으로 바로 잡아주거나 혼계할 수 있습니다. 새 부모로부터 사랑이 없을 경우 자녀들은 혼계를 자신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자기들이 사랑 받고 있으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들은 그것을 가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속적인 가족 관계의 근본 원리,”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90쪽)라고 에스라 태프트 밴슨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합된 가족의 부모는 적절하게 훈육하는 태도와 방법에 관해 결혼 초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한 혼합된 가족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그러한 계

획들을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혼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훈육에 관한 다른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경청하고 차이점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해심을 갖게 되면 훈육 방법상의 차이를 조정할 수가 있으며, 부부는 하나의 통일된 표준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제프리 에이치 라슨, “혼합된 가족을 단합시키는 방법,” *엔사인*, 1987년 2월호, 48~49쪽)

자녀들은 이혼한 친부모들 중간에 끼여 자기 시간을 쪼개야 할 경우, 결과적으로 또다시 혼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규율이나 기대치는 가정마다 다르므로 자녀들은 적응을 한 다음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밤, 부모와 자녀간의 접견 및 교회 참석과 같은 활동은 가르치고 교정하고 이미 받아들여진 행동을 다시 강화할 다양한 기회를 줍니다. 일부 부부들은 친부모 중 한 사람이 최소한 새 부모들이 자녀의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될 때까지라도 부모들을 위해 힘있는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을 갈라놓거나 조종하려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부간에 은밀히 결의를 다져두어야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규칙과 규율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 **과거의 배우자.** 이혼의 경우 과거 배우자들은 본인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사적인 편견이나 분노는 누그러지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서로 갈라선 친부모들과 이들의 새 배우자는 서로 협조해야만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배우자와의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부부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친부모와 그 자녀들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독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 배우자를 비난하는 일은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혼합된 가족이 하나가 되려 노력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일 과거의 배우자가 자녀와 관계를 끊거나 더 이상 맺으려 들지 않는다면, 가족은 서로 단합해 자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가 의붓부모를 포함한 온 가족들로부터 풍

부한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그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킬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정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마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거나 좀더 나은 심리 상태가 되어 자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 자녀가 비록 지금은 슬프고 당황한 느낌을 갖겠지만 그렇더라도 완전한 가족 단위와 정상적인 양육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혼합된 가족의 자녀들은 예전 가족보다 두 배나 늘어난 조부모, 삼촌과 고모들 및 사촌들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새 부모들 역시도 또 다른 친인척이 생겼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녀들에게는 새로 생겨난 대가족이 되는 것이며, 이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다들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거나 가족 모임을 하거나 휴일을 함께 보낼 때는 서로 협의해 계획을 짜야 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이 되려면 보통 이상의 영적인 힘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혼합된 가족을 이끄는 성인들은 가족들의 영원한 발전과 복리를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치러야 하고, 가능한 모든 영적 자원들을 동원해야 하며, 적절한 기술을 모두 활용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혼합된 가족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교리와 성약 42:45)할 때 다가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혼합된 가족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할

때 다가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 그분의 기도에 대한



엘리자베스 퀴컨부시

그림: 그레그 뉴볼드

**난** 건너편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가냘픈 손을 꼭 잡은 채 버스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창 밖을 걸눈질했고 가는 머리칼을 흔들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갈수록 안절부절 못했

고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난 창 밖을 보며 그녀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곧 궁금해져서 다시 보곤 했다.

바로 그때 난 그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녀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난 생각했다. '곧 내릴 역이 다가오고 있고 학교에 늦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고 공포에 떠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다음 순간, 나는 건너편으로 가서 그녀 옆에 앉으며 이렇게 물었다.

"괜찮아요? 도와 드릴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손은 떨고 있었다. 그리고 고운 얼굴을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난 그녀의 눈에서 당황하는 빛을 보았다. 난 다시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녹색 핸드백 안에서 노트와 펜을 더듬어 찾더니 뭔가를 쓰기 시작했

# 응답은 나왔었다

다. “오타이를 출발했나요? 버스를 잘못 탄 것 같아요.”

난 펜을 들고 썼다. “농아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계속해서 썼다.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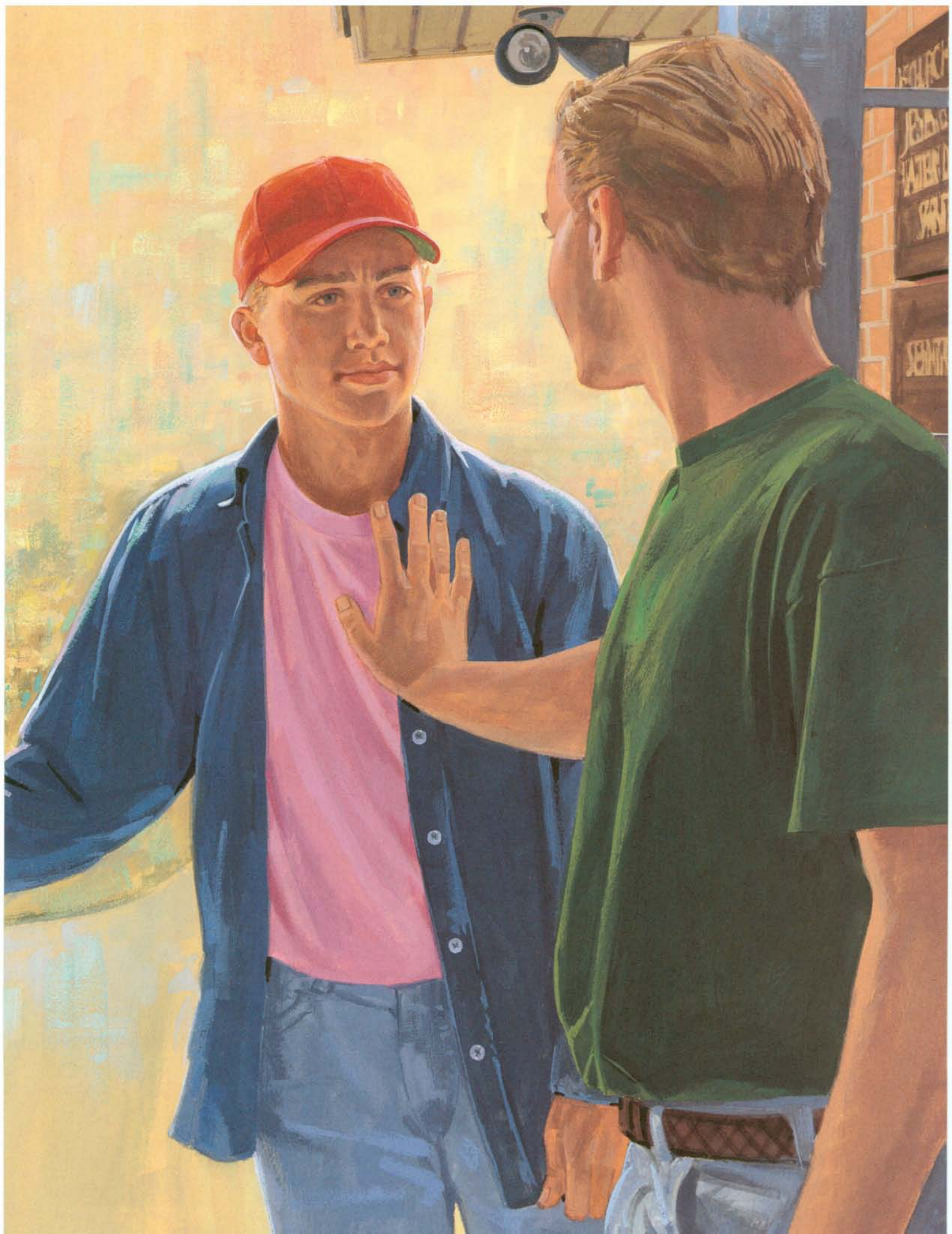
내가 내릴 역은 다가왔고 이리다기는 지각할 게 뻔했지만 난 내리지 않았다. 대신에 난 기사 아저씨한테 갔고, 기사 아저씨는 갈아타는 방법을 본부에 무선 전화로 알아본 후 가르쳐 주었다. 난 그 방법을 그녀에게 적어 주었고 기사 아저씨는 그녀가 제대로 갈아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름이 뭐가요?” 난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에 내리기 전에 재빨리 썼다

그녀가 적었다. “안나예요. 고마워요. 당신이 제가 주님께 간구한 친구였어요.” 그녀의 담갈색 눈을 반짝이게 하는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다. 난 그녀의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 미소로 답하면 서로 사이의 이해심이 우리를 결속하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내리자 문이 닫혔다. 난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었다. 하마터면 내가 안나로 하여금 그 끔찍한 여행을 혼자 하게 할 뻔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난 학교까지 미소를 띠고 줄곧 뛰어갔다. 난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성신의 영에 귀기울인 사실에 감사했다. □





# “우리는 네가 여기 오는 걸 원치 않아”

난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다니던 세미나리  
반원들이 내가 오길 바라지 않았다.

샘 자일즈가 크리스티 자일즈에게 한 이야기

**나**의 가족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에 미국의 한 작은 사막 도시로  
이사 갔다. 그런데 그곳의 말일성도 아이들로부터 나는 냉대  
를 받았다.

난 열다섯 살이었고 나의 가족은 이미 열 번이나 이사를 한 적이  
있어서 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 난 친구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5개월이 지났는데도 교회 회원 중에 친  
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비회원인 친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러한 것  
이 새벽 세미나리 시간이나 교회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난 실제로 5개월 간의 세미나리 참석 기간 동안에 세미나리 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에게서도 인사를 받아 보지 못했다. 또한 주일학교  
시간에는 항상 나와 내 옆 사람 사이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톰 잭슨\*은 말일성도 아이들 가운데 리더였다. 그 아이는 한 번  
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사실 어느 날 세미나리반 문 앞에서  
나와 만날 때까지 그 아이가 내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조차 의심스  
러웠다.

톰이 내게, “집에 돌아가, 우리는 네가 여기 오는 걸 원치 않아.”  
하고 말했다.

\*가명

난 웃으며, ‘농담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농담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난 그의 곁에 서 있  
는 다른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난  
그것을 동의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돌아서자 등뒤로 문이 쾅 닫혔고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들  
렸다.

‘다시는 세미나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가까이 있는  
학교로 걸어갔다. ‘전부 그들 탓이다.’

그날은 하루가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방과후에 버스를 타고 동  
네로 왔지만 집으로 가지는 않았다. 난 세미나리 교사인 머레이 형  
제님의 집으로 갔다. 그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난 그  
를 무척 좋아했다. 사실 그의 가족 모두를 좋아했다.

그는 보통 새벽마다 나를 세미나리 반까지 태워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날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동정해 주기를 바랐다.

머레이 자매님이 문을 열어 주었다. 머레이 형제님은 아직 집에  
안 왔지만 그녀는 들어오라고 했고 레몬 주스 한 잔을 주었다. 나는  
곧 머레이 자매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가 더 이  
상 세미나리 반에 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을  
지 모른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동정적이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라면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고  
나는 말했다.

난 머레이 자매님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고 말하길 바랐다. 또 그  
녀가 아이들의 부모들과 이야기해서 그들이 혼나게 해주겠다고 말  
하길 바랐다. 난 그녀가 날 활동 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자매님은 내 기대와는 다르게 “그래 좋아, 그

렇게 함으로써 넌 그 애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해치는 것이야.”라고 말했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아 할말을 잃었다. 난 빨리 레몬 주스를 마저 마시고 가야 한다며 나왔다.

3주 동안 세미나리 반과 교회에 나가질 않았다. 나의 세미나리 교사인 머레이 형제님은 내가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몇 번 전화를 했다. 난 세미나리 반이 그리웠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집이 섰다. 난 계속해서 나를 비활동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난 그들이 심판의 날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래도 나는 나 자신만 해치게 할 뿐이라는 머레이 자매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몬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띄었다.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며 끝까지 견디면 결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몰몬서 9:29)

이 구절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은 영으로 가득 찼고 머레이 자매님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그 아이들은 못되게 굴었다. 하지만 나만 교회에 다니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그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여 내가 끝까지 견디다면 그들도 결국 나를 내쫓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난 침대에서 일어나 다음날의 세미나리 반에 늦지 않기 위해 자명종 시계를 다섯 시에 맞추어 놓았다.

우리 가족은 뜨겁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사막 도시에서 5개월을 더 살았다. 그 동안 내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생전 처음으로 내 자신의 구원은 나 자신만이 책임을 지며 그 밖의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 이후 세미나리 반이나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교회 아이들이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난 상관하지 않았다. 난 복음의 따뜻함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

## 낮선 이들은 없다

**블**행히도 이 이야기의 청남과 같이 그들의 청소년 그룹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도 소외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 새로운 회원이 있습니까? 그들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말은 모든 청소년 그룹에 존재해야 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새로운 회원을 소외시킨다면 그들과 여러분이 간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서로 관대하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다른 이들의 의견과 기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장점을 인식하고 결점을 찾지 마십시오. 그들의 강점과 장점을 찾으면 여러분의 생애에 도움이 되

는 강점과 장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필 리슨과의 TV 인터뷰,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995년 5월 12일) □



# 난 어울릴 수가 없어!

지넷 웨이트 베넷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게 놀고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그것을 지켜본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특히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다. 혼자가 된 느낌은 누구나 가끔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보다 편안한 기분이 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방법이 있다.

## 행동 지침에 넣어야 할 사항들

- 인내심을 갖는다. 주변 상황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 처음에 편안한 기분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해서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 미소 지어라. 그러면 남들도 미소를 지을 것이다.
-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자원해서 참여한다. 일을 같이 한다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사람들은 대개 도움을 필요로 한다.
- 사람들과 말할 때 그들의 눈을 보고 말한다.
- 재능을 발전시키고 나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편할 것이다.
- 몸차림을 단정히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습관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는다.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공부하는 것 등의 활동은 한 사람 이상이 할 경우 더욱 재미있는 활동들이다. 자기 자신보다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의식과 수줍음을 덜 느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 목표를 세운다. 매주 두세 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목표를 세운다.
- 다른 사람들과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칭찬하는 기술을 익힌다.
-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과 말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다.

- 물론경을 매일 읽으면 다른 이들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침착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준다.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언제라도 낙심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이해하신다.
- 구세주께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 받도록 하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어 내셨다. 구세주의 희생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언약한 것들이 강해지도록 주님께 간구한다.(이디서 12:27 참조).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니파이일서 3:7 참조).
- 여러분이 진심으로 보다 친절해지고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



#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움

브래드 윌콕스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나 는 교회와 잘 맞지 않아요.” 교회 청소년 활동에 처음으로 참석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청남 1명이 “나도 교회 회원이지만 소외감을 늘 느꼈어.”라고 덧붙였다. 둘 다 말일성도인 이 청소년들은 과거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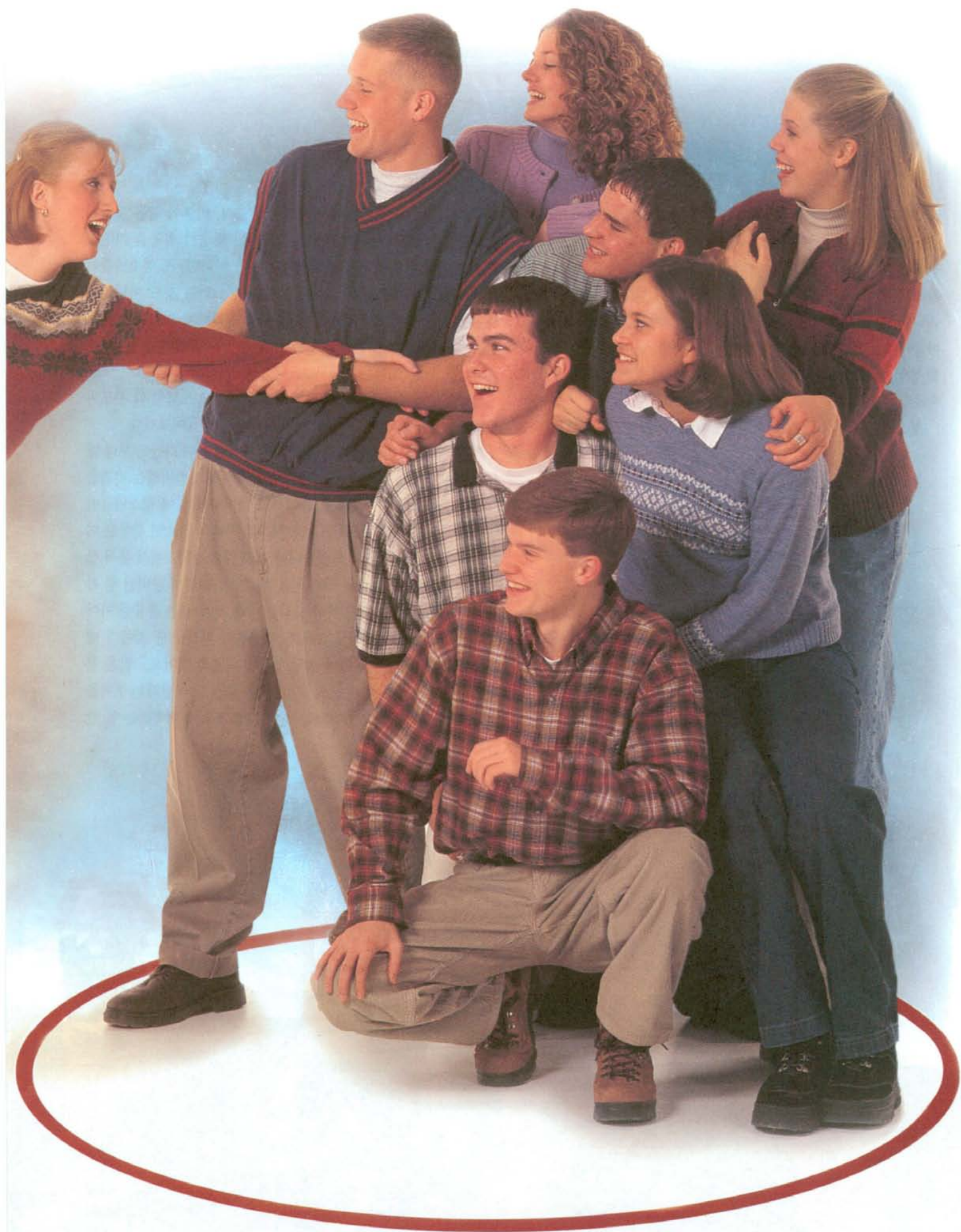
이들 두 청소년의 경우가 말해 주듯 모든 사람은 소속감을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인물을 따르거나 그룹에 속함으로써 안정과 보호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독특한 종교적 이해와 비전을 함께 갖고 있는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정 증진을 통하여 힘과 기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힘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교회 봉사를 통해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무슨 이유에서건 청소년들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건설적인 환경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룹을 찾을 것이고 이 때문에 그들의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큰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감독은 자신의 워드 청소년들 가운데 몇 명이 좋지 않은 그룹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그룹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드십시오.





“저는 와드 청소년 지도자들과 모임을 가져 이 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런 그룹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할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동안 자신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좀더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은 소속감을 통한 안정감을 더 이상 교회 밖의 다른 데서 찾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 활동을 더 많이 가질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계획하는 일을 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감독은 이런 점을 지적했다. 즉 공식, 비공식 활동 모임이 청소년들을 모으는 훌륭한 방법은 되지만 단순히 활동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며, 또 청소년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감독은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고서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내기가 쉽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때 부모와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여기에 들어보겠다.

**계획 수립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킴.** 어떤 청년회장은 보다 많은 참여와 단결을 유도할 청소년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한 이래,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거나, 같은 그룹의 회원 집을 차례로 다니면서 준비된 한 가지씩의 음식을 먹는 순회 식사 모임을 갖는 것과 같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의 성공을 위해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썼어요.” 많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 무도회, 기타 활동 등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면 그런 모임을 준비하는 일이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일 만



롭이나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청소년들의 취향이 다양함을 인식함.** “저는 청남 활동에 참석하지 않아요. 가보면 언제나 농구밖에 하지 않으니깐요. 저는 농구를 그렇게 잘 하질 못해요.”라고 한 청남이 말했다. 활동 시간에 스포츠만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있게 마련이다. 이처럼 편에 박힌 스포츠 분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연극을 보거나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어떤 청남 회장은 기분 전환을 위해 볼링, 골프 또는 수영 등을 제의했을 때 청남들이 불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은 마음이 들떠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청남 회장은 더 나아가 스포츠를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특수한 방법으로 하는 활동에 청남들을 참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야외에서 비치볼로 배구 시합을 한다든가, 어린이 키만한 훌라후프와 작은 공으로 농구 시합을 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운동의 성격을 바꾸고 운동 규칙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아마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기분 좋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드의 전통을 계속 지키거나 또는 새롭게 수립함.** 전통을 계속 지켜 나가는 일만큼 소속감을 불리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활동은 별로 없다. 가정 안에서의 전통의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를테면 침례받은 자녀를 위해 특별 만찬을 갖는 일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대감을 조성해 준다. 이러한 유대감은 지역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서 전통이 되고 있는 활동, 예를 들면 어떤 와드에서 해마다 갖는 ‘문화 예술의 밤’ 같은 활동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킬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스테이시라는 청녀는 새로운 와드로 이사했을 때 그런 전통의 가치를 새삼 인식했다. 처음 몇 주 동안의 일요일은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녀는 부모에게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바로 그 주에 스테이시는 고문으로부터 다가오는 청소년 활동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스테이시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변명을 해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이 그 와드에서는 해마다 독신 형제 자매들이 큰 게임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그 말이 저의 관심을 끌었어요. 해마다 열리는 행사라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와드에 대한 느낌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 여름철의 세차 활동, 청녀들이 청녀 표창을 받을 때 갖는 특별 만찬 등 건전한 목적을 띠고 있고 건전한 오락 속에서 사람들을 뭉치게 해주는 활동은 무엇이나 정규 행사로 지정될 수 있다.

**회원들의 이름을 기억함.** 어떤 청소년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스테이크 밖에서 초청받은 연사가 말



쓰시는 청소년 노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사의 말씀 전후에 그 분이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청소년들에게 이름을 묻고는 그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분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방문한 연사가 다른 스테이크의 회원들의 이름을 익히려고 노력하는데, 나역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자는 자기 와드의 모든 청소년들의 이름은 물론 스테이크 행사 때마다 돌아온 다른 와드 회원 서너 명의 이름까지도 외우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몇 가지 기억법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법보다는 제가 늘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노트 안에 이름을 적는 방법이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잊었으면 얼른 노트를 펴보아 저의 기억을 새롭게 되살리곤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낱알이 알고 계신다.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의 이름을 부르셨다.(요셉 스미스서 2:17 참조) 그분의 예는 우리가 청소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이 된다.

**직접 초대함.**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활동 모임에 초대하는 것은 단순히 연단에서 광고를 통해 초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직접 초대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로사라는 청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공부 때문에 노년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저의 월계반 고문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에게 전화로 모임을 알려준 사실은 마치 제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저를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미소를 짓고 칭찬을 해줄 때,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마치 음식이 신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듯이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해준다. 매튜라는 청남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성취한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도자들이 저를 칭찬해 줄 때 저는 그 점이 무척 좋았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런 단계는 지났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칭찬받을 필요가 없으리만큼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

다고 생각해요.”

나의 아내인 데비는 10대 시절에 어떤 지도자가 그녀의 신뢰성을 칭찬해 주었던 일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그 칭찬이 아내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때문에 냉담한 태도를 취하여 십대 청소년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손을 힘있게 잡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은 곧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된다.

**잘 경청함.**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 지도자가 가까이 경청함으로써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흔히 청소년들은 지도자를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긴다. 관리 감독단의 보좌였으며 지금은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는, “친가족이나 감독이 아닌 제3자적 입장의 지도자도 청소년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우수한 세대: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지도서(1975년), 168쪽)라고 설명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느낌을 나눌 때에는 가르침이나 충고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폴이라는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부모님이나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분들은 걸핏하면 충고하려고 하죠. 저에게 훈계를 시작하시면서 유혹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매우 유익한 견해나 느낌을 청소년들에게 말해 줌으로써 그들의 관심사에 반응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영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들이 우리의 침묵을 온당치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지지하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적절한 시점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 신뢰를 쌓는 셈이 된다. 이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신뢰를 쌓음.** 어떤 청남은 자신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의 세미나리 교사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이 공동 관심사는 그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공동 관심





청소년들과 공동 관심사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려는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견해와 느낌을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락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10대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활동의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대회가 끝날 무렵에 가진 간증 모임도 그 전해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 전해의 간증 모임 때에는 스테이크 지도자의 한 사람이 말했듯이,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냥 앉아서 킁킁 웃고 서로를 쿡쿡 찌르며 장난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맛본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열심이었다.

**구세주에 초점을 맞춤.** 교회 회원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함으로써 소속감을 누릴 수 있다. 그밖에 여러 그룹, 클럽, 또는 조직에서도 이와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교회가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인정 이상의 것으로 교회 회원들이 특유의 영적 소속감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알고 있으며(니파이삼서 18:31 참조), 신앙과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구세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모사이야시 5:7 참조)

그러나 교회 표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이러한 영적 소속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들은 “나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성찬을 취할 수 없어.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어.” 하고 말할지 모른다. 일요일 공과 시간이나 노년의 모임 또는 부모나 감독/지부장(또는 그들이 지명한 보좌)과 접견을 갖는 시간은, 청소년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고 구세주의 속죄가 가져다 준 축복에 초점을 두도록 도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된다.

어떤 청남은 몇 해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결국 다시 돌아왔다. 간증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인기 있는 그룹과 어울리기 위하여 헤서는 안 될 많은 일들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하고서 교회로 돌아와 완전히 활동화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하심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속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사를 찾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은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 데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과 공통점이 별로 없는 회원들과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한 청남이 제시하는 견해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다른 와드로 옮겨올 때, 저는 음악과 학교 공부와 운동 등 모든 면에서 취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제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 학교의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않을까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교회에 다녔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제각기 취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구세주에 대한 사랑과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성을 쌓음.** 청소년들은 용이 있게 일어서서 영적인 도전에 맞설 수 있다. 몇 해 전 청소년 대회를 맞아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을 유원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다음해 대회 때에는 활동의 종류를 바꾸어 보았다. 이번에는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영적인 수련과 봉사 활동을 계획하여 단순한 오

# 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레니 로사 에이 실바

그림: 스코트 무이

**19**87년에 두 딸 중에 큰딸인 마르셀라가 브라질의 티라테네스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명찰을 단 두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졌고 선교사들은 딸아이에게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셀라는 흥미를 느꼈지만 내가 말일성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한 회원의 가정에서 복음 토론을 하였고, 그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나이가 19세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몹시 반대했기 때문에 딸아이의 침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는 당시 매우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잡지 쫓이에 놓인 잡지 몇 권을 읽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리아호나* (포르투갈어 판) 몇 권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읽던 기사가 매우 흥미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86년 2/3월호에는 사지가 마비된 캐나다의 젊은이 시 피터슨(제니 다카하시, "전형적인 특별한 말일성도", 23쪽 참조)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의 어머니가 보여 준 신앙과 인내심에 특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 무렵이던 1988년 1월에 작은딸 모니카가 급성 맹장염을 앓아 몹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르셀라와 나는 작은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최선을 다해 위안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문득 *리아호나*에서 읽었던 신앙의 모범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시의 어머니였던 아니타 비기넨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르셀라와 나는 모니카를 부둥켜안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내 모니카의 얼굴에 혈색이 돌며 울음을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의사는 맹장염이라고 진단한 것은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모니카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니카와 나는 복음 토론을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1988년 3월 19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르셀라는 후에 스위스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리아호나*에 나온 신앙의 모범들은 교회에 대한 나의 예전 생각들이 그릇된 것임을 보여 주었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여러 해 동안 잡지를 읽으면서 간증을 꾸준히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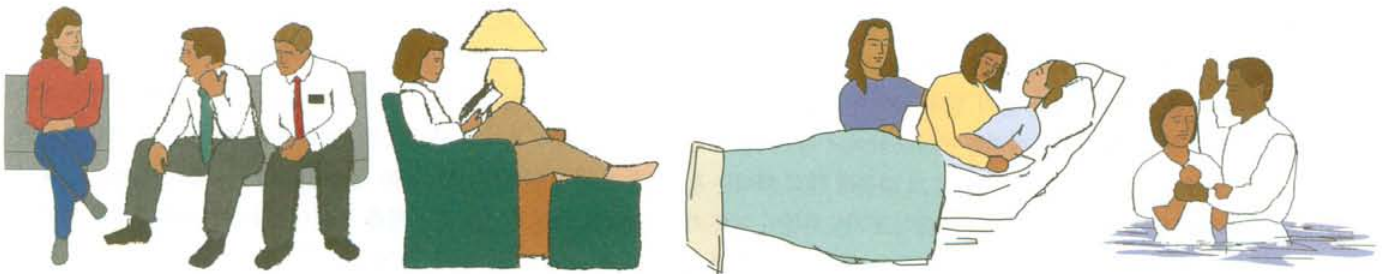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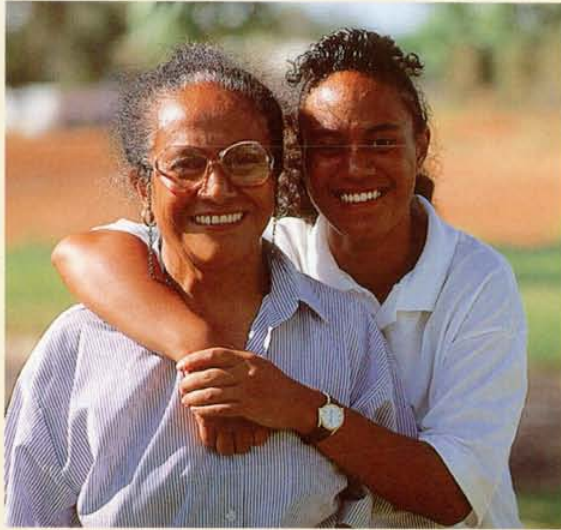




그림: 윌리엄 부그로우(1825~1905), 무덤가의 여인들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이 무덤에 안치된 것을 목격한 여인들은 나중에 그분의 시신에 기름을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 입구에 있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더 이상 그 곳에 없었다. 여인들은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두 분을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제서여 사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누가복음 24:65~24:8 참조)"



**우**리는 우정 증진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자  
그분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됨으로써 기쁨을 느낀다. 청소년들  
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을 갖지 못할 경우 다른 그룹에서 그것을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 부모나 교회 지도  
자들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자신이 와  
드나 지부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을까? “청소년들이 소속  
감을 느끼도록 도와줌”, 42쪽 참조